

ISSUE 01

송영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학과 교수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의 현주소

소방공무원의 위험한 근무환경

최근 국내 재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택과 아파트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건물 화재를 비롯해,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전기차 화재,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산불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던 시기에는 구급대원의 출동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방 업무 중 대국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은 점점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순직 및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수는 총 1,336명에 달한다. 이는 각종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관련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다만, 이 통계에는 지원 및 예방활동,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65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약 700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는 소방력 측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손실이며, 화재 등 재난 현장의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출동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활동 중 유해물질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비롯한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간에 비례해,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은 777명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1인당 1,263명, 경기도는 1,186명으로 여전히 소방공무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¹⁾

소방공무원의 이러한 인력 부족은 현장 활동 시간을 늘리고, 그에 따라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

소방청은 이러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소방청 조직 내에 보건안전담당관실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제도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청 훈령으로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이러한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일선 소방서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기호흡기, 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장갑 등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개인보호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개인보호장비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방공무원을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훈령으로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현장의 유해인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표적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건강상 징후를 미연에 파악하고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 활동 시간을 줄이고, 극한 근무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